

1999년 썬이 야광인 것을 아시나요?

1999년 썬의 특징

[썬 도안의 채택] 1999년 썬인 “밤하늘의 별자리”는 여태껏 국내 우표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매우 특이한 소재인 별자리(constellation; 星座)를 도안화 한 것이다. 썬 도안은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자리 20가지를 선정한 것으로 밤하늘의 별자리 모습을 구현하고자 이를 야광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별자리 부분의 인쇄는 축광(蓄光)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다.

축광잉크란 축광도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외부에서 빛을 받으면 이를 흡수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발하는 야광잉크로 국내의 썬이나 우표류에서는 처음으로 인쇄된 것이다.

1999년 썬을 야간에 전등 불 밑에서 30초가량 빛을 쏘인 후 전등을 끄면 썬 전지 표면에서 아름다운 별자리 모습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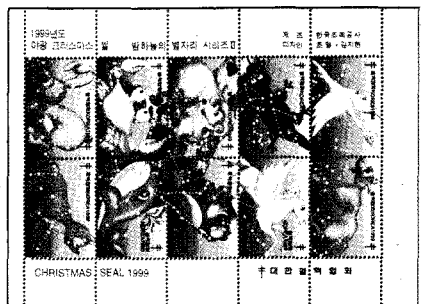
[썬 전지의 구성] 썬 전지는 소형전지와 대형전지의 2 종류가 있으며 소형전지는 썬 10매(2×5)로 구성되어 있고 시리즈 I 과 시리즈 II 의 2가지이다. 대형전지는 소형전지 2종을 결합한 썬 20매(4×5)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광잉크를 사용한 관계로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였으며 디자이너는 조열(趙烈), 김지현(金志炫)의 공동작품이다. 소형 및 대형전지의 변지에는 각각 “야광 크리스마스 썬”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1매 판매의 액면가액은 170원이다.

썬 도안의 별자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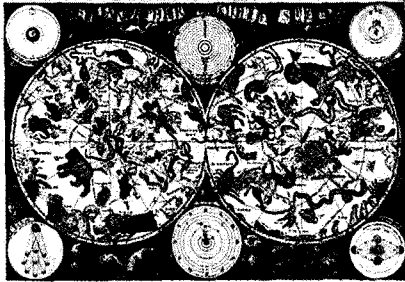
별자리란 하늘의 별들을 쉽게 찾고 알아보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별들을 몇 개씩 이어서 그 형태에 동물, 물건, 신화 속의 인물 등의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이다. 현재는 국제천문연맹(IAU)이



밤하늘의 별자리 시리즈 I



밤하늘의 별자리 시리즈 II



17세기 서양의 별자리판

1928년 총회에서 별자리의 계통을 정리하여 공인한 88개의 별자리가 쓰이고 있으며 별자리는 과거부터 육지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여행자와 바다에서 배로 항해하는 선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를 하늘의 별 지도로 이용하고 있다.

1999년 썰 도안에 사용한 별자리는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가능한 별자리 53종 중에서 다음과 같이 동물을 상징하는 20종을 선정하여 썰의 도안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중 시리즈 I의 비둘기자리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볼 수 있는 별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다른 동물 별자리를 선정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시리즈 I의 썰 도안]

1)외뿔소자리(Monoceros)와 용자리(Draco)



그림 1 외뿔소자리(좌)/ 용자리(우)

☞ 외뿔소자리는 겨울철 “대(大)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한 별자리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밝은 별들이 있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우며 별자리의 넓이에 비해 별의 수가 적어서 이를 별자리로 연결하여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별로 썰 도안의 외뿔소는 소가 아니라 말과 같이 보이게 잘못 그려져 있다. “대 삼각형”이란 겨울철 별자리를 찾는 기준이 되는 성군(星群; Asterism)으로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Betelgeuse),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Procyon), 가장 밝은 별인 큰개자리의 시리우스(Sirius)의 3별을 연결한 삼각형의 별 집단이다.

☞ 용자리는 북극성을 둘러싸고 북극의 넓은 영역에 걸쳐 자리 잡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자리 중 매우 큰 별에 속한다.

2)사냥개자리(Canis Venatici)와 기린자리(Camelopardalis)



그림 2 사냥개자리(좌)/ 기린자리(우)

☞ 사냥개자리는 북두칠성의 국자 자루 남쪽에 위치하며, 초여름 저녁때 머리 위에서 볼 수 있으며 제일 밝은 별은 3등성이며, 그 밖에는 모두 4등성 이하의 어두운 별들이다. 썰 팸플릿에는 작은개자리(Canis Minor)로 설명하고 있으나 2개의 별자리는 전혀 다른 별자리이다.

● 기린자리는 추운 겨울날 북동쪽 하늘의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Cassiopeia)자리 사이를 자세히 보면 희미한 별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별자리이다.

3) 사자자리(Leo)와 큰곰자리(Ursa Major)

● 사자자리는 새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별자리로 북두칠성(北斗七星) 국자의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을 연결하여 나아가면 찾을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별자리이다.

● 큰곰자리는 별자리 중 가장 잘 알려진 북두칠성을 이루고 있는 별자리로 큰곰자리의 꼬리와 엉덩이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이 북두칠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별자리이다.



그림 3 사자자리(좌)/큰곰자리(우)

4) 뱀자리(Serpens)와 황소자리(Taurus)

● 뱀자리는 여름철 남쪽하늘에서 관찰되는 별자리로 뱀의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별이 분리되어 있으며, 두 별자리 사이에는 뱀 주인자리(Ophiuchus)의 거인이 뱀을 쥐고 있는 형상으로 놓여 있으며 처녀자리(Virgo)와의 경계에는 크고 아름다운 구상성단(球狀星團; globular cluster)인 M5가 위치하고 있다.

● 황소자리는 초겨울이 되면 동쪽 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커다란 V자 모습으로 남쪽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표적인 별자리이다.



그림 4 뱀자리(좌)/황소자리(우)

5) 비둘기자리(Columba)와 큰개자리(Canis Major)

● 비둘기자리는 우리나라에서 일부만 볼 수 있는 별자리이므로 썰 도안 선정시 다른 별자리로 선정하여야 했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 큰개자리는 겨울하늘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별인 시리우스가 있는 별자리로 남쪽하늘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림 5 비둘기자리(좌)/큰개자리(우)

[시리즈 II의 썰 도안]

1) 백조자리(Cygnus)와 염소자리(Capricornus)

● 백조자리는 여름 하늘 은하수를 따라서 견우와 직녀성 사이를 날아가는 모양으로 큰 십자가를 그리듯 펼쳐져 있는 북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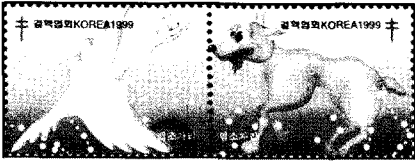


그림 6 백조자리(좌)/ 염소자리(우)



그림 7 도마뱀자리(좌)/ 페가수스자리(우)



그림 8 양자리(좌)/ 물고기자리(우)



그림 9 게자리(좌)/ 고래자리(우)

늘의 별자리로 일명 북십자성(Northern Cross)이라고도 한다.

☛ 염소자리는 남쪽 하늘의 별자리로 가을이 되면 독수리자리(Aquila)의 동남쪽 아래에서 커다란 역삼각형 모양의 별 무리를 보게 되는데 이 별은 신화에서 목동의 신 판(Pan)이 변하여 염소가 된 별자리이다.

2)도마뱀자리(Lacerta)와 페가수스자리(Pegasus)

☛ 도마뱀자리는 북쪽 하늘의 작은 별자리로 일부가 은하수에 걸쳐 있어 마치 작은 도마뱀이 은하수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으며 모습은 W형태로 작은 카시오페아처럼 보인다.

☛ 페가수스자리는 유명한 신화로 하늘을 나는 천마를 뜻하며 페가수스의 몸체에 해당하는 사각형은 북쪽 하늘의 중심부에 해당하여 다른 별자리를 찾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3)양자리(Aries)와 물고기자리(Pisces)

☛ 양자리는 안드로메다자리의 남쪽에 세 개의 별이 가늘지만 긴 삼각형을 만들고 그 아래 작은 또 다른 세 개의 별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놓여 있는 별자리이다.

☛ 물고기자리는 페가수스 사각형의 남쪽과 동쪽에 희미한 별로 이루어진 비교적 크고 밝지 않은 별자리이며, 이 별자리는 두 마리의 서로 연결된 물고기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으로 춘분점에 놓여 있는 별자리이다.

4)게자리(Cancer)와 고래자리(Cetus)

☛ 게자리는 겨울과 봄 사이 동쪽 하늘에 넓은 틈이 보이는데, 이 공간을 메우는 어두운 별로 봄철 저녁에 주로 보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별자리이다.

☛ 고래자리는 늦가을부터 높이 떠오르는 남쪽 하늘의 별자리로, 별의 광도가 변하는 변광성(變光星:Variable star) 중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변광성이 있는 별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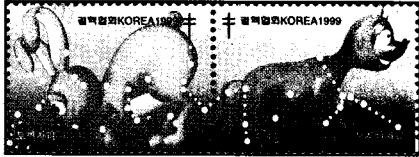


그림 10 토끼자리(좌)/ 살괭이자리(우)

5) 토끼자리(Lepus)와 살괭이자리(Lynx)

● 토끼자리의 별들은 밝지는 않지만 주변에 작은 별들이 없어 밤에 비교적 뚜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별자리이다.

● 살괭이자리는 헤벨리우스(J. Hevelius)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매우 어두운 희미한 별들이 일렬로 띠를 이루고 있는 별자리이다.

1999년 쉼의 관련자료

[**쉼 폴더(Folder)**] 쉼 자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쉼 폴더(120×176mm)로 내부에 소형 쉼을 담아 둘 수 있는 포켓이 있으며, 뒷면은 별자리 소개 글이 있고 내부에는 쉼 판매에 대한 홍보 안내 글이 인쇄되어 있다. 쉼은 3,628만매를 발행하였으나 쉼 폴더는 22,000매의 소량을 제작하였기에 쉼 폴더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매우 어려운 품목이 된다.

[**쉼 팸플릿**] 쉼 폴더 이외 쉼에 대한 홍보용 팸플릿(145×215mm)도 제작하였으며 내부는 3단으로 접는 형태로 속지에 인쇄된 제목은 “밤하늘의 별자리 이야기”이며, 쉼 도안으로 채택된 20종의 별자리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다.

이 글을 보는 독자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 후 어두운 밤에 1999년 쉼 전지를 꺼내 전등 불빛에 30초가량 빛을 쏘인 후 전등을 끄면 방안에서 아름다운 별자리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1999년 쉼 홍보물(대한결핵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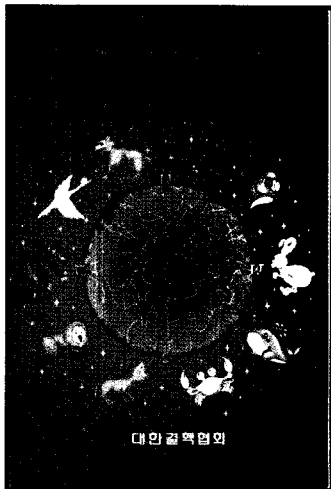


그림 11 쉼 폴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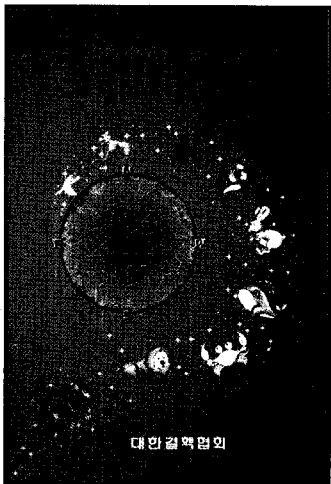


그림 12 쉼 팸플릿



이 글을 쓴 남상욱(halon21@chol.com)님은 쉼 수집가로 서초우치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